

전남 서부권

‘주포 한옥마을’ 예상외 분양 저조

50가구 중 15가구 신청…3.3㎡당 50만원 땅값 부담

함평군 추가접수 불가피

함평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포 한옥 전원마을’ 분양 신청이 당초 예상과 달리 미진한 것으로 드러나 추가 접수가 불가피 하는 등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입주희망자 분양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분양불량 50가구 중 15가구만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자들은 관내 3가구, 관외 12가구로 외지인들의 분양신청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함평군 관계자는 “주포 한옥 전원마을 분양과 관련한 문의 전화는 많

았지만, 실제 토지분양 신청은 15가구만 분양을 신청했다”며 “당초 일반인들의 관심과 비교해 분양신청이 미진해 지속적으로 추가신청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옥 전원마을에 대한 토지분양 신청이 미진한 것은 토지 평(3.3㎡)당 분양가격이 50만원으로 부지 661㎡(200평)형 기준으로 각각 1억 원이 소요되는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평당 500만~600만원 상당) 부담이 있기 때문에 도로와 산·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입주자들의 관망이 예상된다.

실제 함평군은 한옥건축에 대한 순수 군비보조가 없어 다른 시·군과 차이가 나고 있다. 이는 건축비 부담과 높은 토지분양가로 인해 분양이 미진 /서부취재본부=황운학기자 hwang@

완도해경 ‘헬프콜’ 운영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양동신)는 낙도지역 근로자들의 인권유린 방지 위해 인권보호 직통전화(122)를 개설하는 등 ‘도와주세요 헬프콜’ 제도를 운영한다.

완도해경은 벽지 도서의 김 암식장 등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 중에 정신지체 장애자들이 강제 취업돼 임금체불과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들의 인권 침해의 예방과 피해 방지를 위해 인권보호 직통전화를 개설했다.

인권보호 직통전화는 해남군 화산면 상마도, 중마도, 하마도와 송지면 어불도 4개 도서에 설치됐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여권, 우편 배달해 드려요”**해남군-우체국 협약…택배 서비스**

해남군이 주민들의 여권발급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우편 배달 서비스’를 실시, 호응을 얻고 있다.

이를 위해 해남군은 최근 해남우체국과 ‘맞춤형 계약등기’계약을 체결하고 21일부터 여권신청 다음날 배달하는 여권 택배서비스에 나섰다.

맞춤형 계약등기제도는 여권, 신용 카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분

실시 범위에 악용되거나 수취인 또는 관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는 중요 서류를 우편물 접수에서 배달까지 특별 취급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배달하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해남군의 여권발급 신청과 수령을 위해 군청민원실을 2회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해소하고 시간과 경비가 절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군은 여권등기 발송시 각종 군정 홍보물을 함께 동봉해 군정에 대한 홍보수단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낙후마을 35곳**‘마을기업’ 육성****道, 年 사업비 3억 지원**

전북도는 전국최초로 오는 2014년까지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소득자립형 향토마을’ 100개소를 육성한다.

전북도는 2010년도 29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이번 사업의 효과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에는 35개의 향토사업 마을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된 마을은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공덕마을과 익산 황열읍 석매리 석매마을,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마을 등 기준마을 16개소를 비롯해 남원시 운봉면 행정마을, 순창군 복흥면 금월리 강두마을, 임실군 성수면 도인리 당당마을, 부안군 내요리 돌모산마을 등 신규마을 19개소이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에는 연간 2억~3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 향토자원 활용을 위한 유통·제조·가공 등의 기반구축 시설비 ▲ 상품개발 홍보·마케팅비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

역량있는 기존마을은 소득증대 활성화 사업을 지원(3억)하며, 신규

마을은 커뮤니티 형성, 소득자원 개발 등 기반구축 위주로 지원(2억)하게 된다.

전북도는 오는 2014년까지 총 475억원을 투입해 소득자립형 100개마을 육성을 목표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코자 전국 최초로 특화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광역단위 최초로 민·관 협력체계인 중간조직을 활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또는 ‘마을만들기 협력센터’를 통해 마을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마을만들기 협력센터는 ▲상품판매 및 체험운영을 위한 마을별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마을 주민교육 및 사업 전반 모니터링 지원 ▲마을현장 애로사항 해결 및 원스톱 온 오프(on-off)라인 상담 등 역할을 하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낙후되고 침체된 농촌마을에 주민 주도의 소규모 사업운영을 통한 소득 창출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봄 향기에 취하다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파업 지속하면 보조금 중단”**전북도·전주시 노사 양측에 타협 촉구**

전북도와 전주시가 77일째 장기화하는 전주 버스파업 사태의 해결을 위해 노사 양측에 ‘통큰 타협’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완주 도지사와 송하진 전주시장은 22일 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파업이 노사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

을 투입해 진봉면과 금구면 일원에 ‘새만금 마실길’과 ‘봉우산 마실길’을 새롭게 만들 계획이다.

지난해 조성된 ‘모악산 마실길’과 ‘금구 명품길’은 주말이면 도보 탐방객들이 수백명씩 찾아오는 김제의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김제시는 새로운 여행문화 패턴인 도보여행에 눈높이를 맞춰 올해 상반기 중에 분산된 관광자원을 선형(線形)으로 네트워크화해 이미 조성된 마실길과 연계시켜 최적의 도보길로 단장·탐방객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명품길이 새

옛길·숲길·논둑길 … “김제로 도보여행 오세요”

김제시가 옛길과 숲길, 논둑길, 마을길 등을 이은 ‘스토리가 있는 길’을 조성, 도보 여행객의 밟길을 이끌고 있다.

김제시는 지난해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모악산 마실길’과 ‘금구 명품길’을 조성한데 이어 올해 사업비 6억원

을 투입해 진봉면과 금구면 일원에 ‘새만금 마실길’과 ‘봉우산 마실길’을 새롭게 만들 계획이다.

지난해 조성된 ‘모악산 마실길’과 ‘금구 명품길’은 주말이면 도보 탐방객들이 수백명씩 찾아오는 김제의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배우 손현주씨 CF 재능기부에 감동”

완도군 직원들 ‘팬클럽’ 화답

군은 10~20대에 계는 세상에서 최고인 아빠와의 벽찬 여행을, 30~40대 주부에게는 아직도

연인 같은 부드러움과 설렘을 주는 남편과의 여행을, 40~50대 중년 남성에게는 한 번쯤 내 마음과 통하는 옛 친구와의 여행을, 60~70대 부모에게는 믿을직한 효자 아들과 함께하는 여행을 생각하게 하는 의미 있는 흥보 영상을 찍을 계획이다.

완도군과 손씨의 인연은 지난 해 11월 방송사 PD 22명을 초청한 페미투어 행사에 손씨가 참석하면서 시작됐다. SBS 인기 드라마 ‘이웃집 웬수’에 출연한 손씨가 드라마 종영 후 잠시 휴식을 위해 완도를 찾으며 시작됐다. 이후 군은 손씨를 왼도 명예면장(전복면장)으로 위촉하고 축제홍보 CF 출연을 제의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영산강변에 나만의 나무를 심자”

道, 내달 20일까지 ‘희망의 숲’ 참여자 모집

영산강변에 개인 소유의 나무를 심을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영산강변에 개인 소유의 나무를 심을 수 있는 ‘희망의 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달 20일 까지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 사업에 도민 및 출향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영산강을 환경 친화적인 생태공간으로 탈바꿈하는데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나간다

는 방침이다. 희망의 숲 조성에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및 출향인들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홈페이지(www.4rivers.go.kr/tree)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나주시, 담양, 무안, 함평군 홈페이지 접

수처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는 1그루당 15만원에서 30만원정도인 버드나무, 낙우송, 왕벚나무, 은행나무, 펜나무, 자귀나무 등을 구입해 시·군 수목 식재 행사일에 심을 수 있다.

수목 식재 행사일은 나주시와 담양군은 3월 25일, 무안군 3월 24일, 함평군 4월 5일로 예정돼 있다.

참여자들이 심는 나무에는 이름표도 붙여주고 출생·입학·결혼 기념·승진·취업·건강기원 등 다양한 소망을 담은 태그를 20년간 보관해 준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목포신항 컨테이너 물동량 급증**개항 첫 화물 전용 크레인 설치****목포신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증**

함께 따라 개항 이후 처음으로 컨테이너 화물처리 전용 크레인이 설치된다.

목포지방 해양항만청은 다음달 중순까지 군신항에 있는 크레인 2기를 목포 신항으로 옮겨 설치할 계획이다.

목포항만청은 최근 목포 신항 컨테이너 하역 생산성 향상과 항만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지난해 4월부터 국토해양부 등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군신항에 설치된 미활용 컨테이너 크

레인 2기를 옮겨 설치하기로 했다.

목포항만청은 그동안 목포 신항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를 위한 기초시설 공사와 세부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

하고 이설작업이 끝나는 오는 4월부터 상업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전용 크레인이 운영에 들어가면 기존 하역시설보다 시간당 생산성이 30TEU(1TEU=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에서 45TEU로 크게 향상돼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 5만3000TEU 달성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전 북



점심시 영월면 은선리에 위치한 한 시설하우스내 블루베리가 때이르게 꽂을 피웠다. 기능성 식품으로 손꼽히는 블루베리는 플라스틱 틀을 낮춰 노화방지와 농출증 예방

〈연합뉴스〉

버스 운행률을 80%, 시외버스 운행률을 90%까지 높이지 않으면 버스 업계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버스사업자들은 버스 운송수입금과 보조금의 사용내용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면서 “앞으로 지급되는 버스 보조금에 대해 더 정확하고 엄밀한 실사와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노조 측에도 “3월 2일 개학 이전에 버스 파업을 해제해 학생들의 수업권과 일상생활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버스 사업자들이 이달 말까지 시내

〈전북취재본부=김용철기자 k0765@

단 신

전주시 ‘세원 밭굴·증대’ 아이디어 공모

전주시는 4월 20일까지 ‘세외수입 세원밭굴 및 증대방안’에 대한 아이디어·제안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전체 세입액의 22%(2011년 본예산 기준)를 차지하는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군산해경, 새만금 내측에 공기부양정 투입

군산해양경찰서가 ‘공기부양정’을 새만금 내측에 투입하기로 해 상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기대된다.

군산해경은 새만금 내외측 치안수요의 변화와 지난해 12월 개소한 새만금파출소 치안 대응력을 향상시키 위해 소속 공기부양정을

변산파출소에서 새만금파출소로 3월에 이동시키기로 했다.

2008년에 제작된 공기부양정은 기존 경비함정과는 달리 새만금 내측의 그물과 암초의 제약을

받지 않는 특성을 살려 대응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익산시청 공무원 ‘역사 학습 동아리’